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수능형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 새순은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어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어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라
가기로 목숨 걸면 ㉥ 지는 해가 문제라

고통과 설움의 땅 훑훑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 고정희, <상한 영혼을 위하여>

1.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③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예찬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바탕으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⑤ 말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2.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은 현실의 시련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기능이 유사하다.
- ② ㉢과 ㉣은 생명력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함축적 의미가 유사하다.
- ③ ㉤은 ㉥이 피는 것이 가능하도록 해 주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은 ㉥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에 해당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 ⑤ ㉤은 ㉢이나 ㉣이 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고정희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는 자연물과 자연 현상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해 갈 수 없는 고통이라는 문제에 대처하는 화자의 태도는, 성숙한 삶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는 ‘상한 갈대’와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은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을 깨닫게 해 준 자연물에 해당하겠군.
- ②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와 ‘가자 고통이어 살 맞대고 가자’에서, 고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③ ‘고통과 설움의 땅 훑훑 지나서’라는 시행으로 미루어 볼 때, ‘뿌리 깊은 벌판’은 화자가 도달하고자 하는 성숙한 삶의 경지로 이해할 수 있겠군.
- ④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이라는 시행에서, 고통이라는 문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해 갈 수 없다는 점을 자연 현상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군.
- ⑤ ‘캄캄한 밤’이라는 시구에 이어지는 ‘하늘 아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해 갈 수 없는 고통을 혼자 견여야 하는 암담한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

4. 위 시와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
벌거벗고 언 땅에 꽃혀 자라는
초록의 겨울 보리.
생명의 어머니도 먼 곳
추운 몸으로 왔다

진실도
부서지고 불에 타면서 온다
버려지고 피 흘리면서 온다

겨울나무들을 보라
추위의 면도날로 제 몸을 다듬는다
잎은 떨어져 먼 날의 섭리에 불려 가고
줄기는 이렇듯이
충전 부딪돌임을 보라

금 가고 일그러진 걸 사랑할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다
상한 살을 해집고 입 맞출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다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
열두 대문 다 지나온 추위로
하얗게 드러눕는
함박눈 눈송이로 온다

- 김남조, '생명'

- ① 위 시, <보기>는 모두 시련과 고통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② 위 시, <보기>는 모두 집단적 유대감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위 시와 달리 <보기>는 명제적 진술을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위 시, <보기>는 모두 구체적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보기>와 달리 위 시는 청유형 표현을 통해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새순은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라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라

고통과 설움의 땅 훑훑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 고정희, <상한 영혼을 위하여>

5.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유형의 표현을 통해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 ②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대립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병치시켜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④ 추상적인 이치를 다양한 사물에 빗대어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⑤ 자연물에 감정을 투영하여 간접적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6. 위 시와 <보기>의 시적 대상인 ‘갈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황량하다고 너는 소리칠래.
버릴 것도 추스를 것도 없는 빈 들녘
바람이 불면 외곶으로 쓰러져 눕고
다시 하얗게 흔들다 일어서는 몸짓으로
자꾸만 무엇이 그림다 쉼 목소리로 오늘도
그렇게 황량하다고 너는 소리칠래.
소리쳐 울래.

외롭다고 너는 흐느낄래.
만나는 바람마다 헤어지자 하는 겨울
지금은 싸늘히 식어 버린 사랑이라고
메마른 어깨마다 아픔으로 서걱이며
떠는 몸짓으로 누군가를 기다리는 오늘도
그렇게 외롭다고 너는 흐느낄래.
흐느껴 울래. - 김선태

- 김선태, '갈대의 시'

① 위 시와 <보기> 모두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존재이다.

② 위 시가 시련을 겪고 있는 존재라면, <보기>는 시련을 이겨낸 존재이다.

③ 위 시가 견고하지 못한 뿌리를 가진 존재라면, <보
기>는 견고한 뿌리를 가진 존재이다.

④ 위 시가 결실을 맺기 위한 과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
면, <보기>는 결과의 의미를 담고 있다.

⑤ 위 시가 시련의 극복을 통해 내면적 성숙을 이루는 존재라면, <보기>는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한 연약한 존재이다.

7. <보기>를 참고하여 위 시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은 민주화 이전의 암울했던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배경으로 하여, 암울한 시대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단한 모습과 이를 이겨 내고자 하는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또 영원한 고통은 없음을 깨달으면서 암울한 현실을 함께 이겨 낼 희망적 존재가 있다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① ‘밑둥 잘리어도’는 암울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군.

② ‘물 고이면’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단한 삶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겠군.

③ ‘뿌리 깊은 벌판’은 암울한 현실을 이겨 내고 맞이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하는군.

④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는 영원한 고통은 없다는 깨달음을 드러낸 것이군.

⑤ ‘마주 잡을 손’은 암울한 현실을 함께 이겨 낼 수 있는 희망적 존재를 상징하는군.

8. 다음 중, 위 글의 화자와 태도가 유사하지 않은 것은?

① 조국을 언제 떠났노 /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 // 남
국을 향한 불타는 향수 / 너의 녀은 수녀보다도 더욱
외롭구나!

- 김동명, '파초'

②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 저
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
고 앞으로 나아간다

- 도종환, '담쟁이'

③ 매운 바람이여 바람이여 / 전우의 송장 하나 지고 /
나는 바람에 파묻히며 돌아가리라 / 역사는 싸움만이
만든다 / 바람이여 바람이여 역사여

- 고은, '바람과 함께'

④ 온 혼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 버
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화에서 영상으로 /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⑤ 안개가 짙은들 산까지 지울 수야. / 어둠이 짙은들
오는 아침까지 막을 수야. / 안개와 어둠 속을 꿰뚫는
물소리, 새소리, / 비바람 설친들 피는 꽃까지 막을 수
야.

- ‘나태주, 안개가 짙은들’

9.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고정희의 시 세계는 기독교적 세계관의 실현을 꿈꾸는 노래부터 민중에 대한 사랑과 관심, 여성주의적 시선과 작가의 경험에 입각한 선구자적인 작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면을 보여 준다. 그리고 그 모든 시편에서 목숨 있는 존재에 대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노래하였다. 전통적인 가락과 셋김굿 형식을 빌려와 고난에 빠진 민중과 그들이 저항하는 모습을 형상화하기도 한 그는 자유, 민중, 여성 해방을 위해 노력한 시인이다. 애상적 사랑 노래를 위주로 한 한국 여성 시인의 계보에 강인한 의지를 굶은 목소리로 던진 뭇도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 ① 위 글은 3음보의 전통적인 가락을 통해 민중의 고난과 저항을 보여 주고 있어.
- ② 위 글의 화자는 경험을 토대로 하여 선구자적인 태도로 청자에게 조언하고 있어.
- ③ 위 글은 목숨 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청자에 대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노래하고 있어.
- ④ 위 글의 바탕이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면 마지막 연에서 신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어.
- ⑤ 위 글은 사랑 노래를 주로 한 기존의 여성 시인과 달리 강인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새순은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어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어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라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라

고통과 설움의 땅 훑훑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 고정희, '상한 영혼을 위하여'

10. 위 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비유법을 통해 고통의 한계에 대해 말하고 있다.
 - ③ 대상을 의인화하여 적극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설의법을 통해 화자의 내적 다짐을 표현하고 있다.
 - ⑤ 대구법을 통해 희망의 존재에 대해 긍정하고 있다.

11. <보기>의 ㉠~㉥와 위 글의 시어를 의미상 유사한 것끼리 짝지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각목으로 ㉡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산 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렇듯 얼마간 죽음에 빚진 채 삶은
싹이 트고 다시
㉢ 잔뿌리를 내립니다

꽃을 피우고 꽃잎 몇 개
뿌려 주기도 하지만
버팀목은 이윽고 삭아 없어지고

㉣ 큰 바람 불어와도 나무는 눕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허위허위 길 가다가
만져 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집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나는 ㉤ 싹 틔우고 꽃 피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 복효근, '버팀목에 대하여'

- ① ㉠-밑둥 잘리어도
- ② ㉡-마주 잡은 손
- ③ ㉢-새순
- ④ ㉣-캄캄한 밤
- ⑤ ㉤-지는 해

12.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고정희 시인은 평소에도 입버릇처럼 “나는 이상과 현실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으며 현실과 예술의 혼을 따로 떼어놓지 못한다. 삶과 이데아는 동전의 안과 밖 같은 관계이다.”라고 말해 왔다. 그는 남녀 차별과 사회 모순을 꿰뚫어 보고 군더더기가 일절 없는 직설적이고 강건한 어조로 여성 해방을 노래하며 시와 삶을 하나로 밀어 갔다.

- ① 위 글은 일상적 소재를 사용하여 현실과 예술을 분리한다.
- ② 위 글에서 화자가 가려고 하는 ‘고통’은 이데아를 의미한다.
- ③ 위 글은 종결 어미에서 직설적이고 강건한 어조를 드러낸다.
- ④ 위 글의 ‘등불’은 작가가 처했던 사회적인 어려움을 의미한다.
- ⑤ 위 글은 수사법을 사용하지 않고 주제를 직설적으로 전달한다.

내신형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새순은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앞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라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라

고통과 설움의 땅 훑훑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 고정희, ‘상한 영혼을 위하여’

1.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연물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 ② 다양한 수사법을 사용하여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 ③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 ④ 공감각적인 표현을 통하여 시적 대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⑤ 대립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화자가 믿고 있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2. 이 시를 읽고 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봉석 : 화자의 희망 찬 어조와 낙관적 미래관이 잘 어울려.
- ② 소현 : 청유형을 사용하여 고통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고 있어.
- ③ 준혁 :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잡아 줄 초월적 존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
- ④ 선기 : 강인한 삶의 의지를 가지고 고통을 받아들이면 내면적으로 더욱 성숙해질 수 있을 거야.
- ⑤ 민진 : 어차피 피해 가지 못할 고통이라면 직접 부딪쳐 보면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3. 이 시에서 ‘상한 영혼’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구절들을 모두 찾아 쓰시오.

4. 이 시와 <보기>를 비교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 도종환, <흔들리며 피는 꽃>

- ① 이 시와 <보기> 둘 다 반복과 설의적인 표현으로 시련의 극복을 강조하고 있다.
- ② <보기>와 달리 이 시는 아픔을 함께 이겨 나갈 동반자에 대한 낙관적 믿음이 깔려 있다.
- ③ 이 시의 ‘흔들림’과 <보기>의 ‘젖음’은 고통에 시달리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④ 이 시와 <보기> 둘 다 유사한 통사 구조를 사용하여 음악적인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 ⑤ 이 시의 ‘개울’과 <보기>의 ‘바람과 비’는 성숙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고난과 시련을 의미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밀동 잘리어도 ㉠ 새순은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잎이라도
㉢ 물 고이면 ㉣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고통과 설움의 땅 훑훑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 고정희, ‘상한 영혼을 위하여’

5. 3연에 등장하는 시어 중 그 함축적 의미가 이질적인 것은?

- ① 고통 ② 설움 ③ 바람
- ④ 눈물 ⑤ 비탄

6.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통받는 존재를 상징하는 시어이다.
- ② 화자가 희망을 주고자 하는 대상을 의미한다.
- ③ 고통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존재를 상징한다.
- ④ 낙관적인 미래를 기대해도 좋은 존재를 의미한다.
- ⑤ ‘상한 갈대’,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잎’으로 구체화된다.

7. 아래의 표의 빈칸에 ㉠~㉥의 함축적 의미에 알맞도록 각각을 넣어 보자.

(1) 고통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

(2) 새로운 생명과 희망찬 미래

8. 이 시에서 운율을 자아내는 부분과 그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① ‘-니라’:특정 어미를 반복하였다.
- ② ‘-랴’:특정 음운을 반복하였다.
- ③ ‘ㄴ, ㄹ, ㅇ’과 같은 율림소리:특정 어휘를 반복하였다.
- ④ ‘-라도 -거니’:음성 상징어를 이용하였다.
- ⑤ ‘이 세상 어디서나’:일정한 위치에 후렴구를 배치하였다.

9. 이 시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상이 점차 넓어지고 커지는 구성 방식이다.
- ② 이러한 시상 전개 방식을 점층적 구성이라 한다.
- ③ 시상이 전개되면서 시적 화자의 정서가 강렬해진다.
- ④ 이러한 구성 방식은 자연스럽게 역설적 인식을 드러낸다.
- ⑤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10. 이 시와 <보기>의 시적 화자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듯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 도종환, ‘흔들리며 피는 꽃’	

- ① 두 시의 화자 모두 ‘흔들림’을 거부하지 않는다.
- ② 두 시의 화자 모두 시련을 순간적인 것으로 본다.
- ③ 두 시의 화자 모두 교훈적 의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
- ④ 이 시의 화자는 독자로 하여금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한다.
- ⑤ <보기>의 화자는 우회적인 어조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한다.

11. 이 시의 시구를 해석하기 위해 토의를 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의견은?

- ① 춘향: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라는 구절은 성경을 바탕으로 한 구절이래. 절대자는 절대 고통받는 존재를 꺾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드러나 있어.
- ② 심청: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는 아무리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해도 겪어야 할 고통은 끝이 없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구절이야.
- ③ 장화: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는 삶의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외로움을 감당할 의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드러난 구절이야.
- ④ 홍련: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라는 구절에는 비장한 각오로 고통을 감내하기로 마음먹으면 무엇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지가 드러나 있어.
- ⑤ 섬월: ‘깜깜한 밤이라도 ~ 오고 있거니’는 고통 속에서도 화자를 찾아 줄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확신과 그에 대한 기다림이 드러난 구절이야.

12. 이 시의 내용과 정서를 바탕으로 고통을 겪는 친구에게 편지를 썼다고 가정할 때, 적절하지 않은 내용은?

친구야. 요즈음 내가 힘들다고 하니, 나까지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아. 힘내! 비록 지금은 힘들고 괴롭지만 분명 좋은 날이 올 거야. ① 시련이나 고통이 영원히 이어지지는 않잖아? ② 지금 이 순간을 두려워하고 피하기보다는, 당당하게 맞서 싸워 나가렴. ③ 시련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겨 내는 모습이 너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해. ④ 물론 고통을 견디는 것은 무척 외롭고 쓸쓸한 일이니까 주저앉는 것도 당연해. 하지만 걱정 마. 네 곁엔 항상 내가 있잖아. ⑤ 캄캄한 밤도 함께 걸어갈 마주 잡을 손 하나 있다는 걸 언제나 잊지 마. 사랑하는 친구야, 기운 내! 화이팅!

13. 다음은 이 시의 각 연에서 중심이 되는 대상과 그 대상들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 시구를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찾아 써 보자.

연	중심 대상	대상에 대한 태도가 드러난 시구
1연	(1)	고통에게로 가자
2연	부평초잎	(2)
3연	(3)	고통과 설움의 땅 훨훨 지나서

14. <보기>의 ‘나’가 이 시의 ‘상한 영혼’에게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스물 세 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팔할이 바람이다.
 세상은 가도가도 부끄럽기만 하드라.
 어떤 이는 내 눈에서 죄인을 읽고 가고
 어떤 이는 내 입에서 천치를 읽고 가나
 나는 아무 것도 뉘우치진 않을란다.

찬란히 티워 오는 어느 아침에도
 이마 위에 얹힌 詩의 이슬에는
 몇 방울의 피가 언제나 섞여 있어
 별이거나 그늘이거나 햇바닥 늘어뜨린
 병든 수캐마냥 혈떡거리며 나는 왔다.

서정주, ‘자화상’

- ① 스물 세 해의 삶에서 나는 고통을 통해 성장해 왔어.
- ② 아무리 발버둥쳐도 고통에서 쉽게 벗어날 순 없었어.
- ③ 남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추어지건 그건 중요치 않아.
- ④ 시를 쓰는 등의 예술 활동에도 얼마 간의 고통이 필요해.
- ⑤ 예술에 전념하면서 더는 병든 수캐마냥 살지 않을 거야.

정답 및 해설

수능형

1. <답> ④

2. <답> ①

3. <답> ⑤

4. <답> ②

위 시의 '마주잡을 손 하나'를 통해 고통을 함께 이겨낼 존재로 집단적 유대감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지만 <보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보기>의 4연은 고통을 알지 못하고 그를 감싸 주지 못하는 이는 친구가 아니라 고 표현하고 있다.

5. <답> ⑤

자연물에 감정을 투영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을 '감정이입'이라고 하는데, 위 시의 시에는 '감정이입'이 사용되지 않았다. 다만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다양한 자연물에 빗대어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6. <답> ⑤

위 시에서는 내면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갈대'에 비유하고 있다. 따라서 '갈대'는 상처의 시간을 통해 내면적 성숙을 이루는 우리 주변의 누군가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보기>의 '갈대'는 황량함과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하여 소리치고 흐느끼는 연약한 존재로 표현되고 있다.

7. <답> ②

8. <답> ①

이 글에는 고통에 정면으로 맞서서 적극적으로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지만 ①에는 대상(파초)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난다.

② 말없이 벽을 오르는 담쟁이의 모습이 드러난다.

③ 역사를 만들기 위해 싸움도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④ 추운 겨울이라는 고통 속에서 성장하는 나무의 모습이 드러난다.

⑤ 어둠이 짙어도 아침을 맞는 산의 모습이 드러난다.

9. <답> ②

이 글에서 화자는 청자에게 조언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① 전통적인 3음보 가락을 실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보기>의 작가가 목숨 있는 존재에 대해 애정을 가졌다는 설명과 이 글에서 청자인 '상한 영혼'에게 조언하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마지막 연의 '손'은 구원의 손길로,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다면 '신'의 존재라고도 볼 수 있다.

⑤ 이 글은 고통에 맞서겠다는 강인한 의지를 드러낸다.

10. <답> ①

이 글에는 공감각적 심상이 드러나지 않는다.

②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 <답> ⑤

이 글에서 '지는 해'는 부정적인 현실, 시련을 의미하지만 ⑤ '씩 튀우고 꽃 피우며'는 화자가 살아가는 모습(인생)을 의미한다.

① '태풍에 쓰러진 나무'와 '밑둥이 잘리어도'는 시련의 의미를 담고 있다.

② '버팀목'과 '마주 잡은 손'은 함께 시련을 헤쳐 나갈 힘을 의미한다.

③ '잔뿌리'와 '새순'은 시련을 겪은 후 얻게 될 희망을 의미한다.

④ '큰 바람'과 '캄캄한 밤'은 ①의 두 시어와 마찬가지로 시련을 의미한다.

12. <답> ③

이 글에서는 청유형, 의문형 등의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고통에 대한 화자의 강인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① 이 글은 일상적 소재(갈대, 부평초)를 작품에 끌어와서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② 이 글에서 '고통'은 화자가 피하지 않으려는 대상이지 지향하는 이데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등불'은 사회적인 어려움 속에서의 희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⑤ 이 글은 비유, 대구 등의 다양한 수사법을 사용하고 있다.

내신형

1. <답> ④

이 시에서는 공감각적인 표현이 나타나지 않고 대립적 의미의 시어나 청유형 종결, 자연물을 활용한 시적 상황 전달 등으로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① ‘갈대’, ‘부평초 잎’ 등의 자연물과 ‘밑둥 잘리어도 새순은 돋거니’,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두 팔로 막 아도 바람은 불듯’ 등의 표현으로 시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② 이 시는 ‘가자 고통이여~’ 등의 표현에서 의인법, ‘등불은 켜지듯’ 등에서 직유법, ‘~못 가랴’, ‘~문제랴’에서 설의법, 유사한 문장 구조로 인한 대구법 등의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2. <답> ③

‘마주 잡을 손’은 공동체적 연대감으로 현실의 시련을 같이 이겨 나갈 동반자나 동료, 조력자의 의미이지 초월적인 존재는 아니다.

3. <답>

상한 갈대,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

‘상한 갈대’와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은 고통과 설움을 당하고 있는 존재들로, ‘상한 영혼’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시어들이다.

4. <답> ⑤

<보기>의 ‘바람과 비’는 고난과 시련을 의미하지만, 이 시의 ‘개울’은 새로운 생명력을 의미한다.

① 이 시는 ‘고통’, ‘충분히 흔들리~’ 등의 같은 단어나 구절을 반복하고 있고, ‘~못 가랴’, ‘~문제랴’ 등의 설의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보기>는 ‘젖으며 젖으며’ 등의 반복된 표현과 ‘~어디 있으랴’의 설의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② 이 시에서는 ‘마주 잡을 손’이라고 하여 고통을 함께 극복할 동료에 대한 믿음이 나타나고 있는데, <보기>에는 고통 극복의 동반자에 대한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다.

5. <답> ③

6. <답> ③

7. <답>

(1) b, d, e (2) a, c

8. <답> ①

9. <답> ⑤

10. <답> ④

11. <답> ②

12. <답> ④

13. <답>

(1) 갈대

(2)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3) 뿌리 깊은 벌판

14. <답> ⑤

사용설명서 변형 문제

1. <답> ③

‘부평초 잎’은 ‘상한 갈대’와 유사한 의미의 자연물이다. ‘새순’은 상처와 고통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얻은 존재를 가리킨다.

2. <답> ④

설의적인 표현과 점층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은 맞지만 이것이 현실에 의구심을 품는 화자의 자세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화자의 강한 의지적 자세를 보여 준다.

3. <답> ⑤

‘뿌리 깊은 벌판’은 고통과 상처를 이겨내고 도달한 새로운 세계이다.

4. <답> ④

화자는 고통과 시련을 스스로 맞서고 견뎌낼 때 도움을 주는 존재인 ‘마주 잡을 손’이 온다고 하지 고통과 시련을 ‘마주 잡을 손’의 도움을 통해서만 벗어날 수 있다고 하지 않는다.

5. <답> ③

㉞는 고통스러운 대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여건, 희망을 상징한다. 나머지는 모두 시련, 고통을 뜻하는 부정적인 의미이다.